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 황종연 목사 / 2002.02.08 -

안녕하십니까? 황종연목사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선교지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선교칼럼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부부의 사랑이, 한 가족이라는 특별한 공동체 속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믿음이, 이웃과의 관계가, 정치를 하는 사람과 국민이, 스승과 제자가, 친구와 친구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굳건한 약속도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믿었다가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적인 현상으로 연애도, 결혼도 계약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를 투자하면 둘이나 셋을 얻을 것이라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성실하기만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편법과 비리와 거짓이 오히려 힘을 발휘하고 이미테이션이 오히려 하나의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사회 현상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가고 디지털 시대가 온 것처럼 인간 정서에 순수함을 유지하던 시대에서 모든 변화에 빠르게 자신을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서와 가치관도 그 기준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문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사회적 현상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믿음과 확신 없이 정신없이 변해 가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과 그에 속한 사람 하나 하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영원한 삶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 가고 있다면 그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순종할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건강한 사회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고 있으시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누가복음에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12제자들을 시작으로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열정으로 순종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60억 인구 24,000종족 중에 12,000종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남은 일은 나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확신이 없으시다고요?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앉아서 확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그리고 직접 말씀하셔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만 보여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물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홍해에서 지팡이를 들어 물을 갈라놓고 건너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남은 선교를 위하여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